해인을 얻어야 만물 자유롭게 굴려

☞ 19면에서 계속

서 우리를 덮친다 해도 하늘을 받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싱긋이 웃고 가만히 있겠지만, 능력이 없다면 방황이 되지. '곧 덮친다는데' 이러고 일어나게 돼있어요. 그러니깐 그러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코웃음을 탕 치고 팔짱끼고 싱긋이 웃을 수 있는, 그렇게 공부하라는 거지. 그러리만큼 돼라 이거예요.

질문1: 또 한가지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를 어떻게 내 마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스님: 그거는 누누이 말했지.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있고 세상만물하고도 가설이 돼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입력을 하게 되면 우주만물이 다 통신이 돼서 알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염려하고 어떤 거를 염려 안하고 어떤 것이 오염이 되고 어떤 것이 그렇다는 거를 알고 관하면 그냥 직속 통신이 된다고, 그렇게 통신이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어서야 통신이 되겠어요?

보는 것 넘어 실천이 道

질문1: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모든 걸 한 자리에서 한다고 믿고 일체를 맡겨놓는 공부, 생활가운데서 그렇게 해나가는 수행 자체를 우주를 조절하고 세계를 조절하는 공부하고 둘로 보는 것 같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피안의 저 언덕을 넘어서야 된다 하는 말이 있죠. 물질세계에서 살면서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저 언덕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거기까지 도달해야만 느끼고 알게 되지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믿고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언젠가 확답이 나온다' 라고 항상 말을 하죠.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지,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지 않고 누가 믿어주고 누가 갖다줍니까? 누가 알려줍니까? 일체 뿌리의 세계는 무의 세계라고 그랬죠.

질문1: 지금 현재 제주도 크기의 1.6배정도 달하는 남극의 얼음덩어리가 남극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시속 6km로 북상중인 것을 작년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스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북극에 알프스 산 쪽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은 지구의 땅덩이들은 산산조각이 날거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위법의 세계와 무위법의 세계가 둘이 아닌 고로, 저희들도 무슨 문제 하나를 처리하는데 정책을 세워서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과정이 있듯이 상천세계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과정, 즉 무의 세계에서도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말씀하신 게송 '내가 없는 노래'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여래의 한생각이 우리들의 마음하고 연결되어서 찰라찰라 통신되어 돌아간다' 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할 때에 지구 안이나 우주의 전체를 보지 못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만이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천하는 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구가 어떠니 얘기를 하게 되죠. 지구가 엇갈려서 돌아가는 교차로에, 즉 차고 덥고 한 것이 교차될 때에 그 찌꺼기가 나가는 구녘, 조그맣게 놓고 본다면 나가는 구녘이 있고 그게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을 때에 생기는 문제들이, 화산도 일어나게 되고 물 속에서 화산이 일어나면은, 지축이 얕은 데서 일어나는 거니까, 두꺼운 데서는 일어나지 않고 얕은 데서 일어나는 거니까, 물 속에서 일어나면은 물이 펄펄 끓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돼서 지구의 혈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열기가, 즉 말하자면 지난번에 말하길 '원상기가 압축이 되면 공기막이 터진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똑똑히 말을 안 했어도 전자에서부터 그런 말을 해내려온 것 같은데…, 벌써 몇 해전서부터도 그렇고 그런 말을 해왔고, 공산주의가 분열이 돼야 된다는 것도 내가 벌써 십 몇 년 전에 말했죠. 우리는 실천을 하는 주의지, 얘기하는 주의가 아니거든. 예언하는 자가 아니야. 예언만 하고 실천을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어, 본 것도 들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천을 해야 만이 성립이 되는 거지.

실천을 하고 성립이 돼야 만이 무의 과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의 과학으로서의 실천자라고 할 수 있겠지. 즉 말하자면 삼천대천세계를 자유스럽게 굴릴 수 있는 주장자를 말하는 거야. 그 주장자가 있음으로써 해인을 받는다 이런 거야. 인정을 받는다 이 소리이지. 뭐 어디 물건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야.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이 인가를 해주는 것도 아니야. 그건 우주간 법계에서 인가를 하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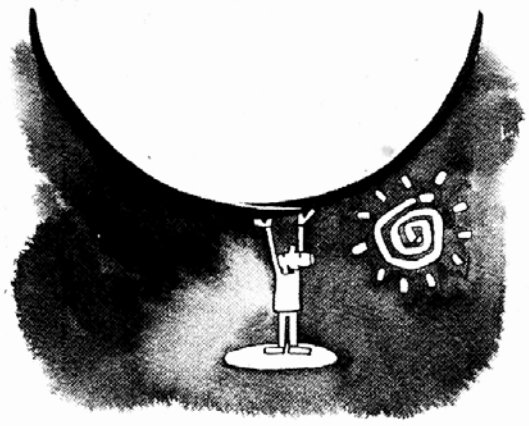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이 가정 사회 우주 이끄는 주인

내 몸 하나 버리면 두려움·탐욕 없어

행주좌와 24시간 참선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인가를 받게 되느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이승천자가 저승천자도 된다. 이승천자도 되고 저승천자도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태양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주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은하계의 별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인정을 받게 돼있어. 막대기 하나를 받을 수가 있다 이 소리야. 그 권리권으로 하여금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다 일으킬 수가 있고 지구를 받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대권을 가지고 있어. 내 자유로서 명을 내린다는 그런 대권 말이야. 신하하고 의논을 안 했어도 인군의 대권으로서 해나가는 게 있지, 그런 거와 같은 거야.

우주의 대권을 가질 수 있어야만이 그 모두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날날이 무의 법계로 통신을 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모두들 안으로 맡기고 모르더라도 그 자리를 쥐고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내 아닌 딴 거를 보고 들었을 때에 그것이 다 통신이 되기 때문에 종합해서 회의를 해서 책정을 하고 내려보내서 일을 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다고 봐야 되지. 우리 정수는 자동적인 컴퓨터라고 해야 돼. 대뇌는 오신통을 들이고 내는 작용을 할 수 있는 송신처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연락줄이 끊기지 않고 있는 거야. 패기가 있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잘 봐서 맡겨야지, 무슨 원수나 사적인 문제라든가 또 공적인 문제라도 잘못 보고를 하면 차질이 생기는 거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잘 접해보고 들어보고 완강하게, 어떻다는 게 책정됐을 때에 관하라 이거야. 그것이 우주법계까지 통신이 되니까.

우리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묵묵히 실천을 해나가는 수행자죠. 그래서 이 공부는 병만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거든지 다 굴릴 수 있는, 말하자면 왕 법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안정이 돼서 처리를 하는 거하고 안정이 되지 못하고 주인없이 그냥 처리를 하는 거하고는 전적으로 다르죠. 운전수는 자동차 속에 핸들을 잡고 있으니까 그걸 믿고 거기서 움죽거리게 해라. 움죽거리는 대로 끌리는 대로 따라서 움직여라, 이러는 건데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는 겁니다. 먹고살고 병이 낫는 데만 치우치니깐 그게 안되죠. 이것을 나의 절대적인 보배다, 나의 절대적인 보디가드다, 나의 절대적인 주인이다, 하고 믿고, 되고 안 되고, 죽고 살고 다 너한테 달렸다, 이러고 그냥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믿지는 않고 되는 것만을 위해서 놓으니 제대로 될 뻔한 일입니까? 그게.

볼난 집에 있는 아이를 건질 때 '얘, 여기 사탕 사왔다, 빨리 나오너라.'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처음에는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번 잘 되게끔 해서 그 끈을 잡고 공부를 해 나가게 하는데도 그걸 몰라요. '좀 되더니 안되네요' 이러 거든? (대중웃음) 그럼 만날 해주다가 보면은 어떠한 일이 생겨도 본인은 한번도 대처를 못하는 거죠. 자립하게끔 길러줘야 되는데 자립을 못하면은 세세생생 남의 것만 얻어먹고 살다가 만약에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기 때문에 자립을 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손을 댔다가도 떼고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선…. 죽는 것도 이왕 죽을 거라면 거기 좀 놓고 죽으면 어때? 이왕 죽을 거라면 말입니다. 내 몸 하나 버리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을 다 버리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리 좋아도 탐나는 게 없어요. 그 도리를 알면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리를 모르면 욕심도 생기겠지. 그러니까 부지런히 공부해서 알아보세요.

질문2: 마음공부를 할 때 하루 스물네시간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스님: 그 말 잘했어요. 이십 사시간 살아있죠?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십 사시간뿐만 아니라 자는 것도 참선, 일하는 것도 참선, 서 있는 것도 참선, 앉아 있는 것도 참선, 일거수 일투족이죠, 이십 사시간뿐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게 참선이고 그게 공부예요.

질문2: 공부 중에서 관을 할 때 비몽사몽 어떤 계산을 할 때가 있고 아니면은 생시에 생활하면서 계산 같은 거 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관하는 것이 옳은지요.

스님: 관하는 게 이 구녘이 따로 있고 저 구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구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의 뿌리라는 건 한 구녘밖에 없거든. 그 구녘하고 모두 통신이 되기 때문에 그 구녘을 진짜로 믿고 놓는다면 입력이 돼서 사회에서 어떤 파워가 일어난다 해도 거기에다 맡기기 때문에 입자들이 나가서 상대방이 돼버리니까 전부 관한 사람의 마음과 동시에 같이 따라 주게끔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몰라서 지금 그러는데 이런 게 나오든 저런 게 나오든 그걸 관여치 말고 '나를 일깨워 줄려고 그러니까 감사하구나.' 하고 그냥 되놓으세요.

공법은 수행공덕의 문

질문2: 이십 사시간 아무생각 없이 관을 하고 그러면 스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스님: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한 가지만 보고 살아요? 안 그렇죠? 듣는 것도 한 가지만 듣는 게 아니죠? 몸 놀리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한 군데만 가고 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동생이 '형' 하고 부르면 금방 형이 되죠? 또 부모가 부르면 아들이 되죠? 아내가 부르면 남편이 되고 자식이 부르면 금방 아버지가 되죠? 이렇게 찰라찰라 화해서 건너뛰면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공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면 그냥 살라는 말입니까?' 이러는 게 아니라 생활 자체가 그러하고 진리 자체가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생명들과 더불어 같이 공했다 이겁니다. 내가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죠? 그것도 모르면서 뭐. (대중웃음) 그러니까 무조건 너만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고 너만이 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아프면 병이 낫게 할 수 있다고 관하세요. 사회에 살면서 걸리는 게 있으면 거기다가 다 맡겨서 일을 처리해라 이 소리입니다.

질문2: 예를 들어 우리 삶에도 인생에 도장을, 졸업장을 따듯이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없다지만요.

스님: 매길 수 있죠.

질문2: 낮에 생활하면서 관을 하는 게 점수가 높은지 잠자면서 관을 하는 게 점수가 높은지, (대중웃음) 아니면 비몽사몽 왔다갔다 하면서 점수를 매기는 게 높은 점수인지요.

스님: 자면서 하는 것이 50%라면 깨어서 하는 것도 50% 똑 같아요. 꿈도 생시고 생시도 꿈이니까 그건 똑같은 점수예요. 그냥 공이에요.

여러분도 열심히 공법을 수행하고 나가신다면 끊임없이 살 수 있는 자유자재권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거 하나 하나가 공덕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6년 11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大韓佛教 曹溪宗
한마음선원(禪院)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 전화 : 사무처 (031)470-3100
팩 스 (031)470-3116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4리 산5-2
Tel : 043-877-5000 Fax :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번지
Tel : 064-721-4662 Fax : 064)721-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Fax :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3 Fax :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13블럭 9-2노트
Tel : 052-244-0884 Fax : 052)244-0182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번지
Tel : 053-767-3100 Fax : 053)765-1600
● 중부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9-1
Tel : 055-342-6630/6639, 055-345-9900 Fax : 055)346-217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5-746-8163, 744-1321 Fax : 055)746-7825
●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44-21
Tel : 042-532-1481 Fax : 042)526-0891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상도동 18-99
Tel : 054-275-3163 Fax : 054)274-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1
Tel : 043-259-5599 Fax :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번지
Tel : 033-651-3003 Fax :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643-0643 Fax :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1-284-1771 Fax :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 054) 555-8871 Fax : 054) 556-1986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11354
Tel : 718-460-2019 / Fax : 718-939-3974
● Washington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l Rd. Annandale VA. 22003
Tel : 703-560-5166 / Fax : 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210N Catalina St.LA.CA. 90004
Tel : 213-382-1711 / Fax : 213-386-8852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Lincoln Ave.Skokie IL. 60077
Tel : 847-674-0811 / Fax : 847-674-2280
-CANADA (캐나다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 : 416-750-7943 / Fax : 416-701-1359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ap. Fed. CP1406, Rep. Argentina
Tel / Fax : 5411-4921-9286
● Tucuman (뚜꾸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CP4107
Prv.Tucuman Rep. Argentina
Tel / Fax : 54381-425-1400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str. 102,
D41564 Kaarst, Germany
Tel : 49-2131-969551 / Fax : 49-2131-969552
-THAILAND (태국 지원)
43 pattanavet Sukhummvit soi 71
Bangkok, Thailand
Tel : 662-711-2005 / Fax : 662-391-6425